<h1>나 혼자만 레벨업-2화</h1>  
   
  
 <div class="view-img">  
  
</div>  
  
  
  
 <div class="zcfd164012d">  
  
  
  
   
  
   
  
   
<p>2화</p>  
<p>진우의 판단에 모든 것이 달렸다.</p>  
<p>진우는 손 안에 쥐고 있는 E급 마정석을 만지작거리다 옆을 돌아보았다.</p>  
<p>주희가 진우에게 고개를 저었다.</p>  
<p>아마도 불안한 모양이었다.</p>  
<p>사실 불안하긴 진우도 마찬가지였다.</p>  
<p>평소라면 절대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을 것이다.</p>  
<p>그럴 만한 실력도, 그럴만한 배짱도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진우에게는 곧 대학에 들어가야 하는 여동생이 있었다.</p>  
<p>'모아 둔 돈이 없어...'</p>  
<p>진우의 나이는 스물넷.</p>  
<p>공부해야 할 나이에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했다.</p>  
<p>동생에게까지 그런 아픔을 대물림 하고 싶지는 않았다.</p>  
<p>지금은 한 푼이 아쉬운 상황.</p>  
<p>목돈이 필요한 건 박 씨만이 아니었다.</p>  
<p>진우는 손을 번쩍 들었다.</p>  
<p>"저도 갑니다."</p>  
<p>그러자 옆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새어 나왔다.</p>  
<p>2. 이중 던전</p>  
<p>통로는 끝없이 이어졌다.</p>  
<p>선두에게 송 씨를 비롯해 강한 헌터들이 앞장섰다.</p>  
<p>맨 앞에서 걷고 있는 송 씨는 손바닥 위에 소환한 작은 불꽃으로 길을 밝혔다.</p>  
<p>옆에서 김 씨가 물었다.</p>  
<p>"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? 슬슬 빠져나갈 시간도 고려해야지요."</p>  
<p>"우리가 얼마나 걸었는감?"</p>  
<p>김 씨가 손목에 찬 시계를 들여다보았다.</p>  
<p>"대략... 40분 정도 걸었네요."</p>  
<p>"보스를 잡고 나서 1시간 후에 게이트가 완전히 닫히니까 아직 20분 정도는 여유가 있구먼."</p>  
<p>"20분 안에도 보스가 안 보이면 철수하도록 하죠."</p>  
<p>"그래야겄지."</p>  
<p>송 씨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이더니 엄지로 자신의 등 너머를 가리켰다.</p>  
<p>"김 씨, 앞쪽은 어두우니까 내 뒤로 와서 서."</p>  
<p>김 씨는 송 씨의 불꽃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가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라이트를 켰다.</p>  
<p>그러자 앞이 아주 훤해졌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송 씨는 자신의 불꽃과 휴대폰 라이트를 번갈아 보다 말없이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일행의 후미에는 심한 부상을 입었던 진우와 전투 스킬이 따로 없는 주희가 섰다.</p>  
<p>진우가 뒷머리를 긁적거렸다.</p>  
<p>"저기... 미안합니다."</p>  
<p>"뭐가요?"</p>  
<p>"억지로 끌고 와서요."</p>  
<p>"전 괜찮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."</p>  
<p>진우는 슬쩍 주희의 표정을 살폈다.</p>  
<p>전혀 괜찮지 않은 얼굴이었다.</p>  
<p>고개를 갸웃거리던 진우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다시 물었다.</p>  
<p>"진짜 괜찮아요?"</p>  
<p>그러자 주희가 이쪽을 휙 돌아보았다.</p>  
<p>"당연히 안 괜찮죠. 지금 제정신이에요? 아까 진우 씨가 찔렸던 곳이 조금만 더 위쪽이었으면 심장에 구멍이 났을 거예요. 손목이랑 허벅지에 입은 상처는 또 어떻고요? 그걸 겨우 겨우 치료해 드렸더니 이번엔 또 다른 던전을 간다고요? 어떤 곳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?"</p>  
<p>어찌나 말이 빠른지 듣다 보니 정신이 다 멍해지는 기분이었다.</p>  
<p>하지만 틀린 말은 없었다.</p>  
<p>주희가 협회에서 보기 드문 B랭크의 뛰어난 치유계 헌터였기에 망정이지, 잘못했으면 헌터 일은커녕 당분간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 뻔했다.</p>  
<p>'그러고보니 매번 주희 씨한테 신세를 지네.'</p>  
<p>주희는 귀하고 귀하다는 치유계 헌터다.</p>  
<p>그것도 B급의 인재다.</p>  
<p>협회에서는 당연히 게이트가 생길 때마다 그녀에게 헌터들의 치료를 부탁했고, 진우는 레이드에 참가할 때마다 거의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녀 앞에 앉아야 했다.</p>  
<p>"아프시죠? 조금만 참으세요."</p>  
<p>"낯이 익은데... 혹시 저번에 그?"</p>  
<p>"또 다치셨어요?"</p>  
<p>"우리 꽤 자주 보는 거 같네요."</p>  
<p>"진우 씨라고 하셨죠? 저기 그... 괜찮으신 거예요?"</p>  
<p>"혹시 헌터 일이 적성에 안 맞으시는 게..."</p>  
<p>"...또 오셨네요."</p>  
<p>"팔 내밀어요, 아니, 거긴 집에서 반창고 붙이시면 되고요, 골절된 쪽요."</p>  
<p>이젠 감사함을 넘어서 미안한 마음까지 들었다.</p>  
<p>"..."</p>  
<p>진우가 의기소침해 있자 주희도 방금 쏘아붙인 게 미안했는지 약간은 태도가 누그러들었다.</p>  
<p>"정말 미안해요?"</p>  
<p>"네."</p>  
<p>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던 주희가 진우를 곁눈질하며 입꼬리를 올렸다.</p>  
<p>"그렇게 미안하면... 밥 한번 사는 건 어때요?"</p>  
<p>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권유였다.</p>  
<p>놀라서 쳐다보니 주희는 사춘기 소녀처럼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.</p>  
<p>'소녀라...'</p>  
<p>하긴 주희는 이제 갓 20대에 접어든 처녀다.</p>  
<p>내년에 21살이 된다고 했던가?</p>  
<p>긴 생머리 대신 단발을 하고, 지금 입고 있는 옷 대신 교복을 입혀놓으면 영락없이 여고생이리라.</p>  
<p>교복 입은 주희를 떠올리니 괜히 얼굴이 화끈거렸다.</p>  
<p>진우의 대답이 늦어지자 주희는 양쪽 뺨을 풍선처럼 부풀렸다.</p>  
<p>"뭐야... 나랑 같이 밥 먹는 거 싫어요?"</p>  
<p>그때였다.</p>  
<p>갑자기 앞쪽이 소란스러워졌다.</p>  
<p>"나왔다!"</p>  
<p>"보스방이야!"</p>  
<p>진우와 주희의 시선이 앞쪽으로 옮겨 갔다.</p>  
<p>거대한 문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다.</p>  
<p>헌터들은 문을 둘러쌌다.</p>  
<p>"아니, 동굴 끝에 문이라니?"</p>  
<p>"여태까지 문이 있던 방이 있었나?"</p>  
<p>"이런 적은 처음인데..."</p>  
<p>"이거... 위험한 거 아냐?"</p>  
<p>웅성웅성.</p>  
<p>헌터들이 불안감을 드러냈다.</p>  
<p>목숨이 달린 일이다 보니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.</p>  
<p>하지만 신중이 지나치면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법.</p>  
<p>송 씨는 이번 일이 바로 그 경우라고 판단했다.</p>  
<p>"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갈 참인감?"</p>  
<p>송 씨는 문에다 손을 얹었다.</p>  
<p>"그러려면 그러더라고. 나는 혼자서라도 갈 거구먼."</p>  
<p>송 씨는 10년 차 경력의 C급 헌터였다.</p>  
<p>60을 넘긴 나이만 아니었어도 대형 길드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한 기량이었다.</p>  
<p>그런 헌터가 자신감 있게 말하자, 다들 불안감이 조금씩 누그러들었다.</p>  
<p>"그러고 보니."</p>  
<p>헌터 중 몇몇은 이중 던전에 관한 소문을 떠올렸다.</p>  
<p>"이중 던전에는 굉장한 보물이 있다던데."</p>  
<p>"중소 길드가 이중 던전을 발견해서 한 번에 대형 길드로 성장한 사례도 있다고 들었습니다."</p>  
<p>"던전 안의 마수들은 위치가 어디든 다들 비슷한 레벨이니까 사냥이 어렵지는 않을 테고..."</p>  
<p>만약 소문처럼 이중 던전에 진짜 굉장한 보물들이 숨어 있고, 던전 안의 마수들이 앞서 상대했던 놈들처럼 D급, E급 수준에 불과하다면?</p>  
<p>'저 영감 혼자 보물을 독차지하게 둘 수는 없지.'</p>  
<p>'아무렴.'</p>  
<p>'산후 조리원에, 큰 애 학원비에, 곧 전세도 올려 줘야 하고...'</p>  
<p>헌터들의 이해가 일치했다.</p>  
<p>진우도 각오를 다졌다.</p>  
<p>'E급 마정석 하나로 돌아갈 순 없어. 최소한 D급, 아니 E급 마수 하나라도 더 잡아야 돼.'</p>  
<p>꼭 마수가 아니어도 괜찮다.</p>  
<p>'보물이라도 나온다면...'</p>  
<p>던전에서 나온 보물이나 희귀품은 멤버 수대로 골고루 나누는 것이 관례였다.</p>  
<p>자기가 잡은 마수의 마정석만 챙겨야 하는 사냥과는 분배 방식이 달랐다.</p>  
<p>'여기에서 한몫 잡으면 앞으로 좀 편해질 수 있어.'</p>  
<p>진우는 꿀꺽 침을 삼켰다.</p>  
<p>진우의 비장한 얼굴을 보고서 주희가 물었다.</p>  
<p>"그게 취미로 헌터를 하는 사람의 표정이에요?"</p>  
<p>진우가 어깨를 으쓱거렸다.</p>  
<p>"요즘 누가 자기 일에 목숨을 걸어요? 취미로 하는 일이라면 또 모를까."</p>  
<p>"...예?"</p>  
<p>주희가 기가 차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때, 송 씨가 밀기 시작한 던전의 문이 열렸다.</p>  
<p>그그그그그그-!</p>  
<p>육중한 문은 어떤 장치가 되어 있는지 60대 노인의 완력으로도 쉽게 밀렸다.</p>  
<p>쿠웅-!</p>  
<p>문이 활짝 열리자 넓은 내부가 드러났다.</p>  
<p>헌터들이 앞다투어 안으로 들어갔다.</p>  
<p>"우리도 가죠."</p>  
<p>혹시나 뒤처질까 싶어 진우가 주희의 손목을 잡고 앞장섰다.</p>  
<p>"아..."</p>  
<p>주희는 얼굴을 살짝 붉힌 채로 따라 들어갔다.</p>  
<p>\*\*\*</p>  
<p>헌터들이 안으로 발을 내딛자마자 벽면을 빼곡히 채우고 있는 횃불들에서 일제히 불꽃이 치솟았다.</p>  
<p>화르륵!</p>  
<p>덕분에 안이 환해졌다.</p>  
<p>"뭐야? 불이 켜지네?"</p>  
<p>"이런 던전은 처음이군."</p>  
<p>"뭔가... 달라."</p>  
<p>헌터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.</p>  
<p>안은 고대 신전 같은 분위기였다.</p>  
<p>지하에 숨겨져 있을 것 같은 낡고 음슴합 신전.</p>  
<p>바닥이나 벽면, 천정에는 군데군데 이끼가 끼어 있었다.</p>  
<p>몇몇 헌터들이 몸을 움츠리며 부르르 떨었다.</p>  
<p>"왠지 음산한데?"</p>  
<p>"누가 보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?"</p>  
<p>겁먹은 헌터들을 뒤로하고 강한 헌터들 서넛이 안으로 깊숙이 들어섰다.</p>  
<p>"쯧! 재수 없는 소리들 하지 말라고."</p>  
<p>"빨리빨리 끝내고 갑시다."</p>  
<p>내부는 지나치게 넓었다.</p>  
<p>넓은 돔 형태의 방.</p>  
<p>서울 올림픽 경기장 몇 개를 합쳐 놓은 것만큼, 아니 몇 개를 합쳐 놓은 것보다 더 큰 것처럼 보였다.</p>  
<p>그런데도 왠지 비좁게 느껴졌다.</p>  
<p>이유는 분명했다.</p>  
<p>"저... 저거..."</p>  
<p>"설, 설마 저게 보스는 아니겠지?"</p>  
<p>가장 안쪽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무언가가 자기 덩치만큼이나 거대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.</p>  
<p>그야말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(神像)!</p>  
<p>"맙소사."</p>  
<p>"와아."</p>  
<p>탄성이 절로 흘러나왔다.</p>  
<p>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이미지는 자유의 여신상이었다.</p>  
<p>자유의 여신상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저 정도의 크기가 되지 않을까?</p>  
<p>자유의 여신상은 여성의 모습이고, 의자에 앉은 신상은 남성의 모습이었지만 말이다.</p>  
<p>'어쩌면 그것보다 더 클 지도...'</p>  
<p>헌터들은 거대한 신상의 발아래에서 침을 꼴깍꼴깍 삼켰다.</p>  
<p>다들 저것이 보스면 어쩌나 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.</p>  
<p>'...'</p>  
<p>그러나 신상은 움직이지 않았다.</p>  
<p>다행스런 일이었다.</p>  
<p>"후우-"</p>  
<p>송 씨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.</p>  
<p>"자자, 흩어집시다."</p>  
<p>여유가 생긴 헌터들이 각자 흩어져서 주변을 뒤지기 시작했다.</p>  
<p>"여기 마수로 보이는 건 없는 데요?"</p>  
<p>"그렇죠?"</p>  
<p>"마수는커녕 벌레 한 마리 안 보여요."</p>  
<p>신상이 있는 방은 그 광활한 넓이에 비해 내부 구조가 단순한 편이었다.</p>  
<p>벽면에는 조명으로 쓰이는 횃불들이 셀 수도 없이 걸려 있었고, 그 앞에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석상들이 촘촘히 늘어서 있었다.</p>  
<p>"아름답네."</p>  
<p>"예술품 같은데?"</p>  
<p>석상들은 각각 들고 있는 것이 달랐다.</p>  
<p>무기를 들고 있는 것도 있었고, 책을 들고 있는 것도 있었고, 악기나 횃불을 들고 있는 것도 있었다.</p>  
<p>"마치..."</p>  
<p>"신전의 조각들 같구먼."</p>  
<p>김 씨가 하려던 말을 송 씨가 대신 했다.</p>  
<p>"음?"</p>  
<p>송 씨는 발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다.</p>  
<p>"이건... 마법진인가?"</p>  
<p>신전의 중앙에는 생전 처음 보는 형태의 마법진이 그려져 있었다.</p>  
<p>그때.</p>  
<p>"저기 송 씨 아저씨,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? 이거 좀 봐 주시겠어요?"</p>  
<p>헌터 하나가 구석진 곳에서 특이한 석상 하나를 발견하고는 송 씨를 불렀다.</p>  
<p>마법진을 살피던 송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.</p>  
<p>다른 헌터들도 전부 송 씨가 향하는 석상 앞으로 몰려들었다.</p>  
<p>그도 그럴 것이 유독 이 석상만 날개가 달려 있고 석판을 들고 있었다.</p>  
<p>헌터들이 주목한 것은 석판에 새겨진 글자였다.</p>  
<p>석판을 훑어보던 송 씨가 중얼거렸다.</p>  
<p>"룬 문자군."</p>  
<p>룬 문자.</p>  
<p>지구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고, 오직 던전에서만 발견되는 문자로, 마법계열로 각성한 헌터들만이 해석할 수 있었다.</p>  
<p>"카르테논 신전의 규율."</p>  
<p>송 씨가 첫 문장을 읽었다.</p>  
<p>진우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송 씨가 읽어 주는 석판의 내용을 듣고 있었다.</p>  
<p>그런데 누군가 팔을 잡아당겼다.</p>  
<p>뒤를 돌아봤더니 얼굴이 파랗게 질린 주희가 거기에 있었다.</p>  
  
 </div>  
  
  
  
 </div>  
  
  
  
 <div style="margin-top: 20px;">  
  
 <style>